

종합소식

□농림수산부 우유수급 안정대책 발표□

농림수산부는 7월4일 우유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번대책에 의하면 대용유용 분유공급 2,000톤과 송아지 분유공급 2500톤 및 원유대 지급자금 200억원외에 전지분유 중 kg당 3,000원씩 5000톤 수매키고 하고 방학중에도 학교우유급식이 지속될수 있도록 가정배달로 전환하고 우유가격도 200ml짜리의 경우 일반 가정배달보다 50원이 쯤 1백70~1백80원으로 공급키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부가 밝힌 금년도 우유수급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유생산은 3%, 소비는 12%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분유재고는 1만3천톤이되고 연중 체화량이 최고치를 이루는 내년 3월에는 2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우유수급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육규모가 1백두 이상이거나 우유생산량이 1일 1천kg이상인 낙농가는 스스로 젖소를 도태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반 농가에서도 저능력우를 도태하고 우수육성우를 입식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낙농학회 제17회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낙농학회 제17회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7월7일 전국 각대학 관련교수를 비롯 유관기관 인사등 회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제1관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장 문백교수(중앙대 축산학과)의 반추동물의 단백질 대사와 미생물 작용등 특강에 이어 진행된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우유생산과 우유가공등 2개분야로 나누어져 「종모우 육종가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이광진외 2인·건국대)와 「유당첨가가 체다치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충남대)」등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한국 유가공 연구회 춘계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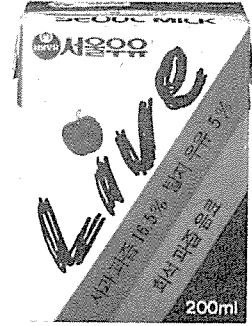
한국 유가공 연구회(회장: 김 영수)는 지난 5월19일 건국대학교 상터 기념도서관에서 제30회 춘계 유가공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 주체는 동물자원 연구센터와 한국유가공 협회의 후원으로서 유가공업계 및 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고 세미나가 끝난 후 간담회 시간을 이용하여 회원 상호간에 정보교환과 친목을 도모하였다.

이날 주제와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제품 수입 자유화에 따른 일본의 정책 실태조사 (영남대 농축산대학 축산경영과 조 석진교수)
2. 우리나라 낙농현황과 전망

- (농수산부 축산경영과 이 인형과장)
- 3. 식품 오염원으로서 부유미생물과 그 측정
(크라운 제과 기술연구소 강 영재박사)
- 4. 우유의 동결건조시 유단백질의 변성에 관한 연구
(독일 Gissen 대학 임 광두박사)



□ SIAL '90 프랑스 국제식품 박람회 개최 안내□

제14회 프랑스 국제 박람회 SIAL '90이 1990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파리 Paris—Nord VILLEPINTE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된다.

SIAL '90의 주요전시품목은 세계 4,000여 회사가 출품할 것이며 농식품, 주류, 유제품및 식품공업, 식품유통에 사용되는 각종제품과 세계각국의 신상품이 6개 대형 전시관에서 분야별로 전시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상무관실 국제 전시회부(전화: 732-4951)로 하면 된다.

서울우유(조합장: 권오걸)는 이번에 식섬유가 함유된 새로운 우유과즙음료 “리이브”를 개발하여 시판에 들어갔다. 리이브 하나에는 사과 6개분의 풍부한 비타민C가 들어있으며 또한 기존의 과즙음료와는 다르게 식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화제를 모우고 있다.

식섬유는 요즘 제6 영양소로 불릴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는 성분으로 소화촉진, 정장작용 등을 도와주어 현대인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 또한 풍부한 비타민C와 식섬유의 작용으로 변비예방, 원기회복, 건강유지등에 좋으며 신선한 사과과즙의 맛이 살아있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기분전환과 갈증해소에도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

□ 건국대학 축산대생 우유마시기 캠페인 도보행진 실시□

건국대 축산 대학생 30여명은 지난 7월1일 대학로에서 발대식을 갖고 우유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우유마시기 범국민 운동 도보캠페인”에 들어갔다.

계속되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땅 농민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28일까지 수원, 대전, 대구, 경주,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장장 497km를 도보로 행진하면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행진도중 이들은 곳곳에서 우유의 효능에 대한 설명이 쓰여있는 전단을 배부하고 우유시음대회를 여는등 남아도는 우유문제의 심각성을 일반국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 우유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서울우유 파평 낙우회 자발적 성금으로—



서울우유 서부지도소 관내 파평낙우회(회장: 이기선)에서는 4월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파평면사무소 앞에서 우유소비 캠페인을 전개했다.

□ 서울우유협동조합 우유과즙음료 “리이브” 개발 시판□

이날 캠페인은 조 흥원 이사를 비롯 동낙우회 회원 전원과 서부지도소 지도요원 등 50여명이 참석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유를 마시자"라고 쓴 어깨띠를 두르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서울우유 200ml 1,000개를 구입 주민들에게 무료시음시켜 우유소비촉진에 기여하는 한편 많은 호응을 얻었다.

□자조금 제도 수립 및 운영전문가

Orville Sweet씨 내한□

미국사료곡물협회는 그동안 시찰단 파견 및 전문가 초청을 통해 미국 축산업계의 자조금 제도를 한국의 관련 업계에 소개해 왔다.

이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미국양돈협회 상근 부회장을 10년간 역임한 Sweet씨를 7월9일부터 2주동안에 걸쳐 한국에서 미국의 자조금 운용방안에 관한 경험과 한국의 자조금 운영 방안에 대해 낙농우협회, 양계협회, 양돈협회 각 지부를 순회하면서 세미나와 간담회를 통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 양돈협회 전화 02-553-3942에 문의하면 된다.

□제7회 한·미 낙농경영 요원

단기과정 교육연수□

USFGC는 한국낙농학회 및 한국낙농우협회와 더불어 1984년 부터 매년 1회의 한·미 낙농경영 단기 과정을 개최해 오고 있다. 선진낙농국의 기술과 경험을 소개하여 한국낙농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제고를 촉진할 목적으로 USFGC는 그동안 쫓소 개량전문가 Donald Hillman(Consultant, 84)등 12명을 초청하여 미국의 낙농기술을 소개하게 했다.

USFGC는 금년에도 Wisconsin 주립대의 Marshfield Research Station에서 연구 및 지도업무에 평생을 바친 Howard Larsen 박사와 동대학의 농공학과에서 낙농시 설분야 강의 및 농가지도사업에 종사해온 Calvin Cramer 박사를 초청하여 7월 23—27일 일주일간으로 예정된 제7회 한·미 낙농경영 단기과정을 후원한다.

지난해까지 모두 6회에 걸친 단기과정에 참여한 한국의 낙농지도요원의 수는 모두 570명에 달했다.

소속기관별 참석자를 보면 농촌진흥청, 축협 및 낙협 등의 지도요원 113명과 유가공업체의 지도요원 132명, 선진낙농가 142명 그리고 사료공장의 기술요원 193명 등이었다. 한국낙농가의 당면과제인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강의가 강조되는 이번 단기과정은 한국낙농우협회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588-7055/6로 문의하면 된다.

□FAD / WHO, 우유 및 유제품

규격에 관한 會議開 催豫定□

FAD / WHO로 부터 食品規格委員會(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가 오는 90.11.5 부터 11월9일까지 5일간 로마 FAO 본부에서 우유 및 유제품 규격에 관한 會議를 開催할 豫定이다.

本 會議에 參加코져 하는 업체는 90. 9. 15까지 신청서류를 도착시켜야 하며 자세한 문의는 (02) 503-7282으로 연락하면 된다.

